

아프면 서울로... 환자 쏠림 심화 광주 10명중 2명 ‘빅5’병원 진료

전남 당뇨·간질환·관절염 환자 전국 최고

237만여 환자 중 30% 광주·수도권서 진료

서울지역 병원을 선호하는 광주·전남지역 환자들의 역의 유출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동안 광주지역 환자 10명 가운데 2명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환자 3명 중 1명은 다른 지역에서 먼 길을 찾아 온 경우였고, 특히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아산·삼성·서울대·가톨릭 성모·연세세브란스) 이른바 ‘빅5’의 타지역 환자 비중은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간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환자 164만여명 가운데 132만4838명이 광주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31만6218명이 서울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일 기준으로 하면 10.8%만이 서울 진료를 받은 셈이지만 진료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약 20%의 환자가 서울로 유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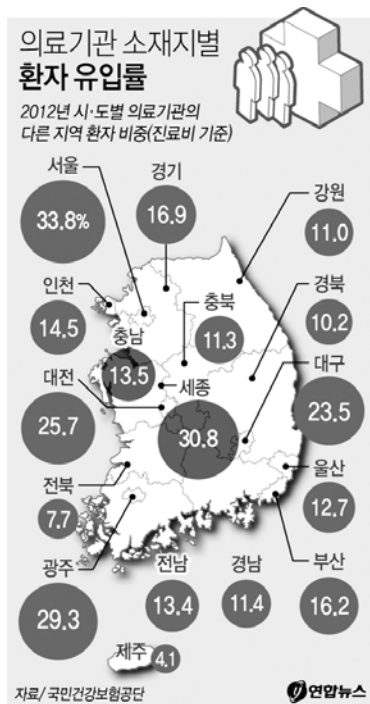
전남지역은 총 237만여 환자 중 166만8058명이 전남권에서 진료를 받았고, 30%에 달하는 70만7796명이 광주와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

았다.

최소 35만명에 가까운 광주·전남 지역 환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서울 대형병원을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8년 28만명의 광주·전남지역 환자들이 서울을 다녀와 2000억원에 달하는 진료비가 유출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 동안 환자의 역의 수출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호남지역 지자체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한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년전보다 4만원 늘어난 104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안(187만원)·고흥(186만원)의 진료비 가장 많았으며, 수원 영통구(73만원)·경남 창원 성산구(82만원)·경기 화성시(83만원) 등 청년층 생산인구가 많은 지역의 진료비는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지역별·질환별 환자 통계를 보면 전남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1000명당 당뇨(62.3명)·간질환(31.6%)·관절염(188.6명)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광주는 갑형성질환(249.1명) 환자가 최고 많았다. 반대로 고혈압 환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광주로 88.5명이었다.



한편 의료보장 인구 1000당 주요 질환자 수는 ▲고혈압 111.4명 ▲당뇨 46.5명 ▲치주질환 278.8명 ▲관절염 117.7명 ▲정신 및 행동장애 51.6명 ▲갑형성 질환 215.9명 ▲간 질환 25.0명 등으로 집계됐다.

200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5년동안 고혈압과 당뇨병은 각각 연평균 3.8%, 4.2% 늘었고 치주질환·관절염·정신행동장애도 각각 1.7%, 3.7%, 4.7% 증가했다. 반면 간 질환은 한해 평균 1.5%씩 줄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택시기사들 ‘디자인비엔날레’ 유니폼 입는다

쓰레기 봉투·명품 쌀 디자인 등 실제제품에 적용

광주 택시 기사들이 광주 출신 유명 디자이너 장광효씨가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선보였던 유니폼(사진)을 입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산업화 프로젝트 실용화 추진 관계자 회의’를 열고 광주 택시 기사 유니폼, 쓰레기 봉투, 광주·전남 명품 쌀 디자인 등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광주 출신 의류 디자이너 장광효씨가 선

보였던 택시 기사 유니폼 디자인을 내년엔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 택시 기사 유니폼 디자인 기획에서 선보였던 장광효씨의 유니폼은 전시기간 관람객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광주시는 유니폼의 기능성을 보완한 뒤 1차로 택시 회사 1곳을 선정해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해 만들어진 예술 쓰레기 봉투도 거리를 수놓는다. 광주시는 5개구 ‘공



공용 쓰레기 봉투’에 시범 적용한 뒤 반응을 살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 ‘빛찬들쌀’ 3~5kg 포장지와 잡곡 포장지도 바꿀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일론 뛰어넘는 신소재 ‘폴리케톤’ 세계 첫 개발... 효성 조석래 회장

지성과 독심의 리더십으로 일군 패자

공학도 출신... 소재산업 세계흐름 정확히 파악

탄소섬유 공장 준공 등 호남 사랑하는 기업인

효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석래(78) 회장의 ‘신소재에 대한 집념과 독심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차세대 엔지니어링플라스틱(가볍고 강한 특성을 지녀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인 폴리케톤의 원천 소재 기술을 개발한 효성은 지난해 3월 울산에 연산 1000t 규모의 폴리케톤 설비를 갖추고 지난달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201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연 5만t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효성은 향후 폴리케톤 관련 사업의 파급효과가 1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38년 미국 듀폰사의 나일론 개발 이후 75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신소재에 대한 관심은 조 회장의 집념과 맞닿아있다. 산업계에서는 폴리케톤의 개발 및 상용화는 조 회장의 10년에 걸친 추진력과 열정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사 연구진에게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효성 기술연구소는 미국 등 세계 유수의 화학회사들이 개발에 도전했지만 생산하지 못한 ‘폴리케톤’에 주목했다. 탁월한 특성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시장을 이끌 것이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것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세계 CEO 가운데 드

문 ‘공학도’ 출신인데다 미국과 일본에서 수학한 경험을 살려 소재산업에 일찌감치 주목했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해 알짜 사업이던 효성바스프(독일 바스프와 5대5 합작)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일본 미쓰비시가스화학 등과 5대5 합작)을 매각해야 했던 조 회장은 이후 “서운한 느낌이 강했다”고 회고했다.

일본 와세다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세계 5대 공과대학인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화학 석사를 받은 조 회장은 끊임없는 연구를 강조, 오늘날 효성을 세계 굴지의 R&D 기업으로 키워냈다.

“개발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는 조 회장의 철학은 효성을 폴리케톤 외에도 스파텍스, 타이코코드, 초고압변압기 등 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독자 기술개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매월 미국과 일본에서 발간되는 신문과 신간 화학서적을 받아보며 아직도 연구진에게 “기술적인 주문”을 하고 있으며 해외 경제석학들의 경영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 독서광이기도 하다.

조 회장은 기업경영활동 외에 ‘민간경제외교관’으로도 오랜 기간 활동했다. 한·일경제협력 회장을 맡아 한·일FTA 체결 추진 등 한일 경제의 현안 이슈 해결에 앞장섰고, 2009년까지는 한·미경제위원회 한국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지난 2004년까지 태평양연안경제협력회(PBEC)회장을 역임해 한국 세계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바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6월 서울에서 열



지난 2009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석래 효성 회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조 회장은 원고 없이 20여분간 영어로 각종 참가자들에게 한국 경제 실상을 호소,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 경제계에서는 전설적인 연설로 회자되고 있다.

<효성 제공>

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원고 없이 20여분간 영어로 각종 참가자들에게 한국경제 실상을 호소,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 경제계에서는 신화로 남아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호남을 사랑하는 기업인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5월 준공돼 전주 경제를 일으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효성의 탄소섬유 공장이 대표적 예다. 특히 효

성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셋째 아들 현상씨의 처가가 광주인 것으로 알려져 조 회장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에서는 “팔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기술개발에 대한 집념이 강하고 독심의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끄는 경영인”이라고 조 회장을 평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면 ‘문화행정’에서 계속

부당한 직원 채용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사무처장의 사퇴까지 이어졌던 인사문제는 신입 사무처장이 ‘화합’을 강조하며 내부단속에 나서서 지경이 됐다.

문화계 안팎에서는 재단직원과 불협화음은 사실상 단체장 선거캠프와

연관된 직원들의 알력싸움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문화전문가 집단이어야 하는 문화재단에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사업 단체 선정에서도 엄격하고 투명한 사후평가 시스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선정 작업을 진행, 공모 취지를 잃었다는 게 문화

계의 중론이다.

문화계 인사 A씨는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단체가 계속 지원받는 경우가 많으며, D문화재단의 경우 해외 레지던스 사업이나 문화예술교육 사업, 사회단체 보조사업 등 상당 부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원받는 일부 단체들의 ‘밤그릇

창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계 인사 B씨는 “부산의 경우 자생력이 있는 큰 규모의 단체들은 소규모 단체들을 위해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는 편인데, 광주 일부 단체들의 경우 욕심이 지나쳐 재단을 넘어 광주시에 직접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 062) 651-6581
010-3690-7790

사 원 모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다,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프론트(신입 및 경력) 여 0명
 - 출서방(신입 및 경력) 남·여 0명
 - 코스관리(신입 및 경력) 남 0명
 - 시설팀 전기안전관리자(경력) 남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골프장 유경험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면접 후 결정)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 ※ 이력서 우측상단 지원분야 및 희망연봉 기재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선암동 전원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